

스뜨렐비쯔끼 대령 - 조선주재 초대 러시아 육군무관

빠블로프*/김종헌** 역

1. 서 론
2. 스투렐비쯔끼의 부임과 그의 첫 임무
3. 대한제국에 관한 스투렐비쯔끼의 정보수집 활동
4. 결 론

1. 서 론

조선주재 러시아 육군무관(‘육군정보원’)에 임명된 4명 중 초대무관¹⁾이었던 총참모부 소속 스투렐비쯔끼 대령은 19세기와 20세기 경계의 한리관계

* 빠블로프 드미트리 보리소비치(Павлов Дмитрий Борисович, 1954년생) - 역사학 박사, 러시아정교 성티호노프 인문대학 교수(모스크바 소재).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연구교수

1) 스투렐비쯔끼의 후임자들은 다음과 같다. 즉, 1902년 8월에 한국주재 육군무관으로 임명된(서울 착임은 1903년 2월 11일) 총참모부 소속의 폰 라아벤(Л.Р. Фон Раабен, 1871~1904) 중령, 1903년 10월부터 근무한 근위대 대위(1903년 말부터 총참모부 소속의 중령) 뽀타뽀프(Потапов), 1903년 11월 29일에 임명된 총참모부 소속 대령 네츠볼로도프(А.Д. Нечволодов, 1864~1938) 등이다. 그러나 네츠볼로도프는 러일전쟁의 개전과 일본의 한국 점령으로 인해 근무지에 착임하지는 못했으며, 극동에 도착한 즉시 러시아 만주주둔군 참모부에 배속되었다. 이후 만주군 참모부의 명령에 의거하여 전쟁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본을 상대로 정찰·파괴 작전을 지휘했다.

와 관련된 인물이었으나, 오랜 시간동안 잊히고 과소평가되었다. 그가 한국 땅에 머문 6년 반(1896년 8월부터 1903년 2월까지) 동안 한러관계는 역동적이고도 극적으로 전개되었다. 1896년부터 1898년까지 한국과 러시아는 전례 없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절멸되었다. 이후 '베조브라조프 일파'의 '사립' 삼림회사라는 위장막 밑에서 시도된 팽창정책은 양측의 의심과 불신을 증폭시켰다. 스프렐비쯔끼라는 인물은 이런 거대한 사건의 그늘 속에 있었으며, 러시아 역사학에서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00년대에 들어서야 그에 관한 연구물들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²⁾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렐비쯔끼의 한국 내 업무가 지닌 강점은 조명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그의 약점만이 과장되었으며, 러시아와 한국의 현실이라는 흐름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그의 모든 활동은 편파적으로 해석되고 평가되었다. 러시아의 대조선 정책 노선이 지닌 특성과 전망에 관한 그의 관점은 전혀 고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와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는 시도다.

스프렐비쯔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개연성을 갖춘 것은 공식적인 사무 처리의 자료를 연구하여 마련된 사료적 토대가 빈약했다는 점이다. 역사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스프렐비쯔끼가 서울에서 총참모부로 발송한 총 300~350개에 달하는 기밀 보고서 중에서 십분의 일에 불과하다. 또한 이 문서들은 러시아국립군사사문서보관소(РГВИА) 내의 다양한 문서군 산하에 그것도 다수의 문서철 안에 분산, 보관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은 상기 문서보관소의 문서군 448('한국'전집), 문서군 400(총참모부) 그리고 문서군 846(군사업무 문서보관소) 등에 집중되어 있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종류의 사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 다음을 보시오: *Добычина Е.В.* О проицах Токио в Корею на рубеже XIX-XX вв. исправно докладывал в С.-Петербург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дполковник И.И. Стрельбицкий //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2004. № 3; *она же.*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ые агент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разведслужбы в регионе в 1901-1902гг. //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2010. № 8.

2. 스투렐비쯔끼의 부임과 그의 첫 임무

1896년 1월 27일(2월 8일, 이하 괄호 안이 서양력 - 역자) 러시아는 상대국에 문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주재 '육군무관'의 직책을 신설하고, 거기에 이반 이바노비치 스투렐비쯔끼(Иван Иванович Стрельбицкий) 대령을 임명했다. 당시까지 페테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 현에 있던 35세의 러시아 장교는 니콜라예프(Николаев) 기병학교를 거친 뒤, 총참모부 산하 니콜라예프 학술원을 2등급으로 졸업하여 자카스빠스까야(Закаспийская) 주와 (제2동시베리아보병여단 소속으로)시베리아에 근무했으며, 여러 달 동안 페르시아(1889년과 1891년), 몽고(1894년), 한국(1894년) 그리고 만주 등지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했다. 서울에 착임하는 그 순간까지 스투렐비쯔끼는(1895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한만국경 지대에서 다시 경찰 업무에 임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1896년 5월에 대령으로 승진했다. 향후 군사 지리학자(地誌學者)로서 스투렐비쯔끼의 활동은 바로 이곳, 즉 유럽의 평론가들 사이에서 간혹 '극동의 이탈리아'라고 명명되었던 한국의 북쪽과 북동쪽에 집중되었다. 스투렐비쯔끼는 1896년 7월 15(27)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자격에서 서울로 향했다.

1896년 1월 고종은 일본인들의 간책으로부터 보호받고자 러시아군 분견대를 자신의 나라로 파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바로 그것이 러시아 군부가 조선에 상주 대표직을 설치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다. 동년 2월 고종은 비밀리에 러시아 공관으로 이어했으며, 곧 이어 러시아 대리공사를 통해 '조선군의 조직'을 위해 군사교관들과 자기 개인의 군사고문을 서울로 파견해 달라고 페테르부르크에게 부탁했다. 이런 조치가 러시아의 수도에서는 "자기 나라의 운명을 러시아에 맡긴다"는 고종의 결심에 대한 증표로서 받아들여졌다.³⁾ 1896년 봄 조선은 모스크바의 대관식에 (유럽 국가로의) 첫

3) РГВИА. Ф. 448. Оп. 1. Д. 9. Л. 1. - Доклад военному министру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адъютанта Н.Н. Обручева. С.-Петербург, 9 апреля 1896 г.

번째 해외 사절단을 파견했다. 본 사절단의 단장이었던 민영환은 자기 군주의 위와 같은 계획을 구두로 증명하고 구체화시켰다. 민영환이 러시아 외무부 및 육군부에서 협상한 결과 동년 여름에 페테르부르크는 조선으로 군사고문과 교관단원들을 파견하는데 동의했다. 군사고문에 임명된 이는 당시 총참모부 소속 중에서 극동 상황의 최고 전문가였던 뿌짜따(Д.В. Путята) 대령이었다. 그는 연야무르 군관구 소속의 군부대 내에서 교관들을 직접 선별해야만 했다. 1896년 10월 3(15)일, 한국 사람들이 '군사사절단'이라고 명명한 러시아 군사교관 일행은 포함 '그레마쉬(Гремящий)'에 승선하여 비밀리에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서울로 향했다.⁴⁾ 뿌짜따를 제외하고도 '사절단'에는 두 명의 청년 장교, 군의관 그리고 10명의 하사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영환의 사절단 역시 그들과 함께 모국으로 귀국했다.

페테르부르크는 서울에 '육군 무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면서 조선 왕국의 군사력 상태를 파악할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 당시 조선의 군사조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었다(러시아 육군부는 한반도를 여행한 장교들의 기밀보고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고종의 왕실 내에 뿌짜따와 그의 피후견인들이 등장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조선의 군사 상태를 보다 완전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주재 육군무관은 더욱 전체적이고 광범위한 과제를 부여받았다. 그것은 작게는 조선, 그리고 크게는 극동에서 러시아의 군사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러시아 군사이론가들은 한반도가 '러시아 시베리아 국경의 최동단 측면'인 동시에 극동지역 군사력을 상대로 한 일본인들의 작전용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⁵⁾ 따라서 러시아 사령부는 순수한 지리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향후 러시아가 중국 북동지역, 즉 만주를 점령할 경우, 한반도는 그곳에 배치될 러시아군에 대한 남쪽으로부터의 잠재적

4) РГВИА. Ф.448. Оп. 1. Д. 9. Л. 21 - Донесение полковника Д.В. Путята в Военно-учебный комитет Главного штаба. Сеул, 18/30 октября 1896 г. № 82.

5) РГВИА. Ф. 448. Оп. 1. Д. 9. Л. 353 об. - Всеподданнейшая записка полковника Д.В. Путята. С.-Петербург, 6 ноября 1897 г.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조선에는 도로가 많이 부족하고 복잡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병참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낮은 경제적 잠재력, 지역적 후진성 그리고 적은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조선에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주둔할 수 없음을 물론, 전장으로 이용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에서의 단독 지배를 주장하는 이웃 일본의 입장도 고려되었다. 1895년 러시아의 걸출한 군사 분석가였던 오브루체프(Н.Н. Обручев)는 “장래 러시아가 태평양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려면” 러시아는 반드시 북만주와 함께 ‘두만강 하구와 세스타코프(Шестаков, 전진만/前津灣-역주) 항을 포함하는 조선 북부의 일부 지역(육군대신은 이 부분과 이후 뒷부분에 밀줄을 그었다-저자 주)’을 점령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러시아가 조선왕국과 평화롭게 지내야만 하는 만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다른 지역에서 일본이 행사하고 있는 배타적 영향력을 ‘무력화시켜야’ 했다.⁶⁾

러시아 육군 사령부의 이런 견해와는 달리 러시아 해군은 조선의 남부에 위치한 부동의 편리한 항만을 태평양 분함대의 기지로 삼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보아, 그곳을 갈망하며 주시하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의 최고 군사정책결정권 내에서는 이미 1880년대 중반에 조선이 먼저 제기했던 문제, 즉 조선에 대한 보호관계의 설립이 합목적적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⁷⁾ 그러나 이러저러한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조선의 현재적 상황을 전면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난 뒤에 조선을 조사하고 연구해야만 했다.

러시아 군사 지도부는 이웃한 조선의 정치적 상황, 국가 조직, 왕실 내부와 수도 및 각 지방에서의 상황, 재정과 경제 상황, 통치권과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분위기에 관해 실로 피상적인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 군사적 목

6) РГВИА. Ф. 447 (Коллекция «Китай»). Оп. 1. Д. 69. Л. 4 об-5, 6. - Записка генерал-адъютанта Н.Н. Обручева о задачах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5 г.

7) Подробнее об этом см.: Симбирцева Т.М. «Загадочный» барон фон Меллендорф и его «прорус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Корее (1882-1885)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Кореи. Петербургский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2001. СПб., 2002. С. 25-44; Лак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Изд. 2-е. М., 2004. С. 145-147.

적에 유용하고 신뢰할만한 한반도지도조차 없어서, 대부분의 연안선 형태는 추측에 의한 것이었으며 다수의 만과 도서들은 묘사되어 있지도 않았다. 총참모부 소속의 장교들 중에서 육로 여행가들(알프탄/В.А. Альфтан/, 소코브닌/М.А. Соковнин/, 까르네예프/В.П. Карнеев/, 스프렐비쯔끼)이 여행 도중 촬영한 것, 여행기 그리고 한 줌에 불과한 보고서 등이 1896년 봄까지 러시아 총참모부 아시아과가 한국과 관련하여 실제 보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다.

외무부와는 달리 육군부는 자신이 파견하는 해외 주재관에게 문서의 형태로 훈령을 하달하지 않았다. 심지어 스프렐비쯔끼의 부임 직전, 그와 지휘부 간에 이루어진 대담내용 조차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임 직후 스프렐비쯔끼가 발송한 보고서를 보면, 페테르부르크에서 받은 그의 임무가 무엇인지 매우 명확해진다. 그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뿌짜따 대령의 일행에게 유리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의미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아니었다. 뛰어난 관찰자였던 뿌짜따의 표현을 빌면, 러시아 군사전문가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국내의 정치적 난관을 해결한다고 습관적으로 일본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위정자들에게 국왕이 의지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⁸⁾ 달리 표현하면, 스프렐비쯔끼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일본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학자인 도비치나/Е.В. Добычина/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음모를 현지에서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1896년 10월 10(22)일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К.И. Вебер)와 스프렐비쯔끼가 제물포에서 뿌짜따와 그 일행을 맞이했다. 이들 일행이 서울로 향하는 중간에 조선의 고관들과 국왕의 특사가 합류했다. ‘러시아 군사사절단’은 환대 속에 서울로 향해, 다음날 국왕을 알현했다. 동년 11월 초 교관들은 대대 규모의 군부대 교육에 착수했다. 이 대대는 1897년 2월 국왕의 환궁 이후 그의 개인 경호부대가 되었다가, 후일 근위대의 지위를 하사 받았

8) РГВИА. Ф. 448. Оп. 1. Д. 9. Л. 21. - Донесение полковника Д.В. Путяты в Военно-ученый комитет Главного штаба. Сеул, 18/30 октября 1896 г. № 82.

다. 뿌짜따 대령은 조선에 도착한 첫 날부터 조선군 개혁을 조언하는 국왕의 군사고문에 임명되었으며, 특명 전권을 하사받았다. 한 마디로 스투렐비쯔끼는 조선에서 자신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3. 대한제국에 관한 스투렐비쯔끼의 정보수집 활동

1) 대한제국 정세에 관한 스투렐비쯔끼의 정보수집 활동

스뜨렐비쯔끼의 다음 행보는 조선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총참모부로 발송하기 위해 작성한 첫 번째 보고서에서 조선 상황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네 개 '정파(민족적 대중',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들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국왕의 아버지이자 이전의 섭정이었던 '대원군', 영의정 '김병시', 외무대신 '이완용', 국왕(스뜨렐비쯔끼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국왕은 능력을 갖추었지만 진정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러시아의 협력자는 아니었다), 서거한 민왕후, 새로운 미국 시민권자 필립 제이슨(독립협회 설립자) 그리고 다른 이들 등, 중요한 위정자와 사회 활동가들의 현재와 최근의 활동이 갖는 성격을 설명했다. 조선 '지식인들의 상황'에 관한 러시아 육군무관의 주요 결론은 "자주적인 내정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전적으로 민족 공동의 자산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의 사건들이 증명해주는 바와 같이 이런 결론은 전적으로 적절한 평가였다.

그러나 스투렐비쯔끼는 상기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위와 같은 마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를 러시아 제국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예언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조만간에 이 나라를 점령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독립된 조선을 건설하겠다는 모든 시도는

단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인바, 그런 미봉책 뒤에는 언제나 군사적 간섭이라는 환영이 버티고 서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에 의한 보호관계 수립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군사고문과 미국 교관단이 조선에 공존하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만큼(“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조선에 대한 궁구한 영향력을 보다 충분히 비중 있게 보장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스프렐비쯔끼는 한반도 점령을 향한 단계로서 이런 행보의 실현성과 그 결과를 동시에 고찰했다. 즉 “모든 자료에 따라 보건데, 예를 들어 보호관계와 같은 종류의 보다 더 공고하고 정확한 형태의 러시아 영향력 구축은 인민 대중으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선 내정과 관련된 문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수적이며, 고래의 종교와 오래된 관습 그리고 심지어 편견, 과거의 통치 형태 등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⁹⁾ 전체적으로 보아 러시아 육군무관의 논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조선에서 누리고 있는 배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야만 하며, 향후의 병합을 고려하여 조선이 자신의 보호국임을 지체하지 않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프렐비쯔끼는 이 경우에 있을 도쿄의 불가피하고도 강력한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총참모부에서는 다른 성향이 지배적이었다. 뿌짜따의 보고서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 했던 러시아 외무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1896~1897년 조선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영토를 점령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고관이라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조선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평화롭게 조선에 침투한다는 계획이 힘을 얻었다. 따라서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스프렐비쯔끼의 생각에 대해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군 고위 관료 중에서 한반도 내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러시아 대대 병력을 즉각 상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태평

9) РГВИА. Ф. 448. Оп. 1. Д. 10. Л. 81 об., 85об-86, 102. - Рапорт полковника И.И. С 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10/22 января 1897 г. № 1.

양 분함대장이었던 해군소장 두바소프(Ф.В. Дубасов) 뿐이었다.¹⁰⁾ 하지만 황제 니콜라이 II 세는 당시(1897년 12월) 서울로 향한 신임 러시아 공사(마튜닌, Н.Г. Матюнин)에게 개인적으로 훈령을 하달하여, 조선 왕국의 독립 유지가 페테르부르크에게 가장 소망스러운 것인바, 러시아는 조선의 점령도 그리고 보호관계의 수립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¹¹⁾

스뜨렐비쯔끼는 지도부의 회의적 견해를 포착한 뒤, 러시아의 전략적 대조선 정책에 관한 자신의 다음 보고서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조선의 최근 역사 그리고 조선 국가 기구의 기능, 궁궐의 도덕과 관습, 종교와 신앙생활, 사회정치생활 그리고 재정경제생활 등의 구조와 특성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며 조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집중했다. 1897년 5월 스투렐비쯔끼는 페테르부르크에 수입과 지출 목록이 포함된 조선의 차년도 예산에 관한 정보를 발송했다(총액이 4백 2십만 달러에 약간 못 미쳤음). 1898년 초 지도에 표시를 해 가며, 국영광산 일람표를 보고했고, 1897-1898년에는 한반도에서의 철도와 전신선 부설 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 1898년 11월에는 1894~1895년의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조선 내 행군로를 측량하여 56장의 측량도를 보고했다.¹²⁾ 1897~1898년 스투렐비쯔끼는 러시아 군사 고문과 교관을 둘러싼 상황, 즉 국왕, 궁정과 그리고 조선 정부의 그들에 대한 태도, 일본, 대영제국 그리고 미국의 공식대표들이 그들의 활동을 상쇄시키려고 취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목격했다. 일본과 영국 외교관의 책동은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인 동료들의 음모로 인해 스투렐비쯔끼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즉 "미국은 조선에서 결코 중립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대세력입니다."¹³⁾

10) РГВИА. Ф. 448. Оп. 1. Д. 10. Л. 173. - Копия телеграммы в Главный морской шт аб контр-адмирала Ф.В. Дубасова. Владивосток, 27 декабря 1897 г.

11) Цит. по: *Лукоянов И.В.* «Не отстать от держав...». Росс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нце XIX - начала XX вв. СПб., 2008. С. 266.

12) РГВИА. Ф. 846. Оп. 2. Д. 111. Л. 3.

13) РГВИА. Ф. 448. Оп. 1. Д. 10. Л. 128 об. - Рапорт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25 мая/6 июня 1897 г. № 33.

스뜨렐비쯔끼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외에도, 프리아무르 군관구 참모부와 서울주재 러시아 공사관이 하달한 모든 종류의 일회성 명령(기본적으로 전자의 그런 명령들은 조선과 만주 국경선에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 접경지역을 조선 측으로부터 지지학적으로 측량하는 것이었다. 후자의 명령에 따라 스투렐비쯔끼는 1897년 12월 목포항과 인접한 지역의 지형을 관찰했다)을 수행해야만 했다. 또한 자기 직속 상부의 명령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898년 3월 랴오둥반도 조차에 대한 러청조약이 체결된 직후 스투렐비쯔끼는 “조선, 예를 들면 평양으로부터 뤼순 항에 대한 석탄을 공급하는 문제를 연구해 보라”는 육군대신 쿠로파트킨(A.H. Куропаткин)의 명령을 하달 받았다.¹⁴⁾ 스투렐비쯔끼는 1898년 6월 ‘평양탄광’의 조사 결과를 페테르부르크에 전문으로 발송했다. 그는 전문을 발송하기 전에 러시아 전함에서 한국 석탄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평양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미 뤼순 항으로 발송했다.

스뜨렐비쯔끼는 이런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서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그는 서울에서의 일상적 근무 조건에 대해 1902년에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즉, “조선에는 통계도, 군사·경제·의회 등등의 그 어떤 보고서도, 정통한 언론도, 지방으로부터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측면에서 중도적인 집단도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집단을 통한 정보의 수집도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보유하고 있었던 모든 자료들은 50년이나 된 진부한 것이거나, 의심할 바 없이 가공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곳에서는 극도로 빈틈없는 실질적인 검증 없이는 황제의 칙령, 국가예산, 세관 보고서 및 기타의 문서들조차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¹⁵⁾ 스투렐비쯔끼는 공식정보의 부족을 개인적인 관찰, 자신의 정보원과 서울 관료세계의 대표들 또는 유럽 거류지에 살고 있는 ‘노인’들로부터 입수한 자료로 보충했다. 러시아 육군무관 스투렐비쯔끼의 자발적인 심

14) РГВИА. Ф. 448. Оп. 1. Д. 8. Л. 50. - Записк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А.Н. Куропаткин а. С.-Петербург, 23 марта 1898 г.

15)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9. Л. 3 об. - Рапорт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17/30 сентября 1902 г. № 78.

북 중에는 프랑스 가톨릭 선교단의 단장이었던 뮤텔(Мютель) 예하(猯下)도 있었는데, 스투렐비쯔끼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조선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의 한 명'이었다.¹⁶⁾

일본이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소문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출장, 번역¹⁷⁾, 정보원을 통해서 '우연히' 입수한 비밀지도와 평면도 그리고 개요도의 사본 작성, 총참모부에 발송할 방대한 양의 비밀보고서 작성, 재정·경제 결산서 사본 작성 등 문서 작성과 잡다한 일들로 인해 스투렐비쯔끼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 비밀첩보도 주요 업무였다. 첩보활동에는 한국인들이 주로 참가했는데, 스투렐비쯔끼는 한중 국경에서의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조선의 북부로 혹은 일본이 상륙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에 따라 한반도의 남부와 서부로 그들을 파견했다. 그는 조선군 최고수뇌부에서 일하는 상주첩보원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조선정부의 관원들이 지닌 정보 수준이 위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았던 것 같다.

2) 군사 지리학자 스투렐비쯔끼의 활동

1898년 봄 서울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다. 1897년에 스투렐비쯔끼가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대한제국 정부 내의 애국주의, 궁정 음모 그리고 타 열강의 압력 하에 대한제국은 러시아가 교관을 소환하도록 만들었다(뿌짜따 대령은 1897년 8월에 이미 조선을 떠났다). 러시아 공사관은 대한제국의 이런 행동에 대한 일종의 '응징' 차원에서 '대한제국 북부의 점령'을 제안했는데, 러시아 육군대신은 전문을 발송하여 대한제국의 "국내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현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지 말 것

16) РГВИА. Ф. 448. Оп. 1. Д. 10. Л. 86 об.

17) 스투렐비쯔끼가 페테르부르크로 발송한 외국 출처의 원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문제에 관한 일본 의회 내에서의 토론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문건이다. 스투렐비쯔끼는 동아시아의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그는 영어와 프랑스어만을 구사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들을 익히기 위해서 통영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등을 하명했다.¹⁸⁾ 그 다음날, 즉 1898년 3월 31일(4월 12일) 육군무관은 “대한제국의 국내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과 업무를 “군사 분야로 엄격히 한정 지으라”는 명령을 접수했다. 본 명령에 따라 스프렐비쯔키는 “한반도를 전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하고 지도와 한반도를 묘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만 했다.¹⁹⁾

스프렐비쯔키는 지도제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는 포시에트(Посыет) 만-기린-묵텐-함흥을 연결하는 총 길이 5천 베르스타(1베르스타는 1,067미터-역주)의 노선을 25베르스타:1 축적의 지도로 작성하려 했다. 그가 이 작업을 마친 것은 1900년 9월이었는데, 그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집한 문서들이 단지 “한 지역의 정확한 지도를 위한 자료이자, 그 지역의 교통로와 군사지리적 특징을 개요도에 옮겨 놓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했다.²⁰⁾ 한반도 북부의 지도제작 계획 역시 실현하지 못했다. 그 원인이 스프렐비쯔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 볼 때 일본과의 개전 직전에 러시아 참모부가 “우리 수중의 한국 지도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수준에서 조차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증언했으며, 스프렐비쯔키는 자신에게는 살인적 행위와 같은 이런 평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²¹⁾ 러시아 육군 지휘부는 도쿄주재 러시아 무관에게 하명하여 일본 참모부와 장교들이 과거에 작성한 한반도 지도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서울 체류 당시 군사용 한국지도를 작성한 것이 스프렐비쯔키의 공적이라고 평가한

18) РГВИА. Ф. 448. Оп. 1. Д. 10. Л. 178 об., 186. - Шифрованная телеграмма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5/17 марта 1898 г. и ответ начальника Азиатской части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майора В.У. Соллогуба от 30 марта/11 апреля 1898 г.

19)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9. Л. 3. - Рапорт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17/30 сентября 1902 г. № 78.

20) РГВИА. Ф. 846. Оп. 2. Д. 111. Л. 21. - Объ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к 25-верстной маршрутной карте. Сеул, 2/15 сентября 1900 г.

21)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9. Л. 41-41 об. - Справка по Главному штабу о положении дел в Корее. С.-Петербург, 13 июля 1903 г. 본 문서에 대한 각주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즉, “이런 견해는 조선주재 전임 군사 정보원의 설명과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역사학자 도비치나(Е.В. Добычина)의 주장은 옳다고 보기 힘들다.

스뜨렐비쯔끼는 러시아 육군 수뇌부의 명령에 의거하여 1898년 중반 이후부터 대한제국의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1899년부터 1902년 사이에 스투렐비쯔끼는 1899년 1월과 7~8월, 1900년 중반 그리고 1902년 말 등 당시의 상황에 따라 대한제국 육군의 구조, 통치체제, 무기, 훈련, 군수, 구성, 병력 등을 조사하고 거기에 전개도와 다양한 종류의 표를 첨부한 시리즈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참모부에 제출했다. 그가 대한제국 육군을 관찰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였는데, 당시 대한제국 육군은 그해야 할 만큼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었다. 스투렐비쯔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99년에 대한제국의 군사력은 장교 200명에 병사 8,500명이 있었다.²²⁾ 그러나 1902년 말에는 이미 대부분 잘 훈련되고 무장한 1만 5천명의 병력이 있었다. 1902년에만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부대 유지에 국가 예산의 4/1 또는 2백 8십만 엔 이상(1890년대 후반 육군이 사용한 금액은 대한제국의 국가 예산과 같은 수치였다. 그러나 절대계산에서는 2~3배 적어서 1백~1백 2십만 엔을 넘지 않았다)이 지출되었다. 유럽 관찰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890년대 중반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합지졸’²³⁾로 여겨지던 대한제국 군대에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사기의 양양’이 관측되기 시작했다.²⁴⁾ 1900년에 조직된 한국 육군총참모부 지휘관(민영환)은 근시일 내에 정규군을 10만 명으로 증강시키겠다고 했다.

스뜨렐비쯔끼는 격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이전에 수행했던 이론적인 분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그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스투

22)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7. Л. 19-28 об. - Отчет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о состояни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Кореи к началу 1899 г. Сеул, 4/16 января 1899 г. № 1.

23) 다름 아닌 ‘rabble’인데, 당시의 서울주재 영국 총영사 조르단(J.N. Jordan)은 사적인 교신에서 한국의 군대를 이렇게 평가했다. - Цит. по: *Lensen, George A.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 Manchuria, 1884-1899.* Tallahasse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82. Vol. II. P. 889.

24)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21. Л. 287-288. - Всеподданнейшая записка А.Н. Куро паткина с приложением перевода статьи из газеты «The China Telegraph». С.-Петербург, 16 января 1901 г.

렐비쯔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예기치 못한 대규모 군사적 사태에 압도되지 말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²⁵⁾ 1901년 1월부터 1902년 5월까지의 16개월 동안 스프렐비쯔끼는 육군부에 겨우 8건의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총참모장은 스프렐비쯔끼가 앞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관해’ 매일 최소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더 자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즉, 한국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다.²⁶⁾ 그러나 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더욱 엄격한 조치가 이어졌다. 즉 1902년 여름 사하로프(Сахаров) 장군은 스프렐비쯔끼의 소환을 요청했다. 그는 스프렐비쯔끼를 라아벤 중령으로 교체해야만 하는 이유를 러시아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극동에서 정치적 사건의 전개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조직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파견된 우리 정보원들은 특별한 에너지와 관찰능력을 지녀야만 합니다.”²⁷⁾ 1902년 8월 28일 니콜라이 II세는 그의 교체를 윤허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03년 1월말까지 스프렐비쯔끼를 서울에 체류시켜야 한다는 총참모부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1903년 2월 11(24)일 임무를 수행 중이던 육군무관은 자신의 업무를 라아벤에게 이관한 뒤 러시아로 귀국했다(스프렐비쯔끼의 마지막 보고서는 2월 13/26/일 총참모부에 발송되었다).

25)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9. Л. 5. – Рапорт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17/30 сентября 1902 г. № 78.

26)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9. Л. 13. – Отношение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В.В. Сахарова полковнику И.И. Стрельбицкому в Сеул. С.-Петербург г., 15 мая 1902 г. № 1581.

27) РГВИА. Ф. 400. Оп. 21. Д. 3002. Л. 2 –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В.В. Сахарова. С.-Петербург, 23 августа 1902 г. № 41 с пометой о «высочайшем соизволении». В том же представлении начальник Главного штаба ходатайствовал об отзыве полковника Г.М. Ванновского, «военного агента» в Токио.

4. 결 론

서울주재 육군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스프렐비쯔끼의 활동을 결산하면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한국의 전반적인 정치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개괄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그 덕분에 러시아 육군부는 한러관계가 수립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상황이나 일상생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스프렐비쯔끼가 사회·정치 및 재정·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보인 덕분에 그의 보고서들은 한·러 양국 간에 이루어진 문화적 교류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보고서는 한국정치사나 한러관계사 연구를 위해 소중한 자료로 남게 되었다. 순수하게 군사적 분야에서, 특히 지도제작과 한반도에 주둔 중인 일본군에 관한 정보수집에서 스프렐비쯔끼의 업적은 보잘 것 없었다. 1901년 봄 러시아 총참모부는 “한국에서의 공격적 군사행동을 위한 일본인들의 군사력과 자금,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군의 상륙 예상 기간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스프렐비쯔끼가 조사한 통계와 군사용 지리학 자료들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였다.²⁸⁾

1903년 6월 말 스프렐비쯔끼는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여, 총참모부 소속으로 ‘잠시’ 근무했다. 그가 극동에서 획득한 지식, 경험 그리고 관계 등은 러시아군부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스프렐비쯔끼는 참모부에서 자신의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극동 업무에도 더 이상 관여하지 못했다. 러일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04년 봄 총참모장은 에티오피아의 황제 메넬릭(Менелик)의 요청에 따라 영국·이집트의 국경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스프렐비쯔끼를 경험 있는 정찰가로 보아 군사지리학자인 알렉세예프(Я.И. Алексеев) 대위와 함께 아비시니아로 파견했다.²⁹⁾ 스프렐비쯔끼는 북아프리

28) РГВИА. Ф. 846. Оп. 2. Д. 111. Л. 35. - Справка генерал-квартирмейстера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майора Я.Г. Жилинского. С.-Петербург, 21 марта 1901 г.

29) РГВИА. Ф. 400. Оп. 21. Д. 3002. Л. 47 - Всеподанный доклад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В.В. Сахарова. Петербург, 8 марта 1904 г. № 8 с пометой о «высочайшем соизволении».

카에서 1904년 10월까지 활동한 뒤, 에티오피아 2등 훈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아비시니아로부터 모국으로 귀국한 스프렐비쯔끼는 총참모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그는 1905년 5월 제2급양계 장군의 관리국 산하 군사통계과, 1904년 6월에는 수석통치부, 1907년 12월에는 1877-1878년의 러터전쟁 기록을 위한 군사사위원회에서 각각 파견 근무했다. 결국 스프렐비쯔끼는 더 이상 진급하지 못했으며, 그의 마지막 러시아 수훈 훈장 '수여식'도 1904년에 이미 받았던 (성 스타니슬라브 3등)훈장을 주는 초라한 것이었다. 1911년 34년간 복무했던 스프렐비쯔끼는 '억지 이유'를 핑계 삼아 퇴역했다. 그는 퇴역과 동시에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소장 제복을 받았으며 매년 지급받는 연금의 액수도 1,613루블로 '인상'되었다(그러나 이 액수는 그가 복무 중에 받았던 연봉 3,750루블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³⁰⁾ 1914년 스프렐비쯔끼는 21세의 딸 에카테리나(Екатерина)와 18세의 아들 게오르기(Георгий) 그리고 안드로니코바(Андроникова) 공작녀를 미망인으로 남겨둔 채 향년 54세로 생을 마감했다.

(원고투고일 : 2011. 10. 1,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스프렐비쯔끼 대령, 한러 관계, 1890년대~1900년대, 러시아 육군무관

30) См.: РГВИА. Ф. 409. Оп. 2. Л/с 7822. О производстве с увольнением от службы чи
слящегося по Генеральному штабу полковника Стрельбицкого.

<ABSTRACT>

Colonel Strel' bitchki' I.I
- The First Russian Military Attach'e to the Korea -

Kim, Jong-heon

The article based on the Russian military-historical archive's documents, represents a scrutiny of the first Russian military agent in Korea Colonel I.I. Strel'bitskii's activity in Seoul in 1896-1903 with the Russo-Korean interrelations of the above period standing as a background of his mission. The author argues that Strel'bitskii's contribution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historiographically miscalculated, mainly having dealt not due to the military sphere in a proper sense than to the cultural communication and "inter-recognition" of the two neighboring countries.

Key Words : Colonel I.I. Strel'bitskii, Russo-Korean Interrelations, 1896~1903,
Russian Military Agent